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10원 상승한 1,296.5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전일대비 1.10원 상승한 1,296.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40원 하락한 1,291.00원에 개장했다. 간밤 달러 약세 등을 반영하여 하락 출발한 환율은 개장 직후 1,290원 부근까지 레벨을 낮추었으나 이내 보험권까지 낙폭을 축소했다. 환율은 아시아장에서 달러인덱스 반등에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오후장 초반 다시 하락 전환했고 달러인덱스 반등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1,296.5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7.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3.0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91.00	1297.80	1290.00	1296.50	1294.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13.51	916.65	906.21	911.3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24.01	1425.93	1411.49	1412.4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8	-5.87	-12.38	-23.89
결제환율(수입)	-0.47	-4.92	-10.8	-21.0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일축에...1,3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96.50) 대비 6.45원 상승한 1,300.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연준 위원들의 조기 금리인하 일축에 따른 달러화 반등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다수의 연준 위원은 3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약 5bp 상승하였으며, 전 거래일 달러인덱스는 102.606으로 전장 보다 0.66%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2% 물가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디스 인플레이션이 예

정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3분기 피벗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로존 12월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 또한 달러 상승을 지지했다. 유로존 12월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는 각각 44.2, 48.1을 기록하며 예상(44.6, 49.0)을 하회했다. 아울러 꾸준히 유입되는 결제수요도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99.00 ~ 1308.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488.6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45원 ↑
	■ 美 다우지수 : 37305.16, +56.81p(+0.1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1.9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2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